

표준협회, 2월 27-28일 이물질관리 실무교육

한국표준협회는 2월 27-28일 천안소재 충남북부지부 강의실에서 제조공정에 클린룸을 보유한 업종의 관리자 및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<이물질관리 실무> 교육을 실시한다.

제조공정에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·전자업종의 공장 청정도 관리는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원부자재의 입고에서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프로세스에 걸쳐 이물(Particle)의 발생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이 핵심적인 품질관리활동의 요체로 부상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발생원인과 메카니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박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5M(사람·설비·방법·재료·측정)+1E(환경)의 관리방안을 습득하며 현장의 이물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클린룸 이물관리 분야에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이물관리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이물관리 추진기업의 사례를 연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8/02/25>